

출판인 재교육 프로그램 활발하다

예영출판아카데미 · 한겨레 출판강좌 등 전문인 겨냥한 교육 늘어

출판산업의 양적 팽창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출판교육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출판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제식 경험전수만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미 출판에 몸담고 있는 출판인도 이같은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출판인 재교육프로그램은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출판 전문강좌의 필요성

지난 9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출판인포럼 주제의 '출판캠프'는 그간 출판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모집 정원을 훌쩍 넘긴 신청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 기회를 기약했고, 빡빡한 일정도 모자라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들의 열기도 대단했다.

재교육에 대한 출판인들의 의욕은 이미 다른 출판강좌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92년부터 출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예영출판아카데미'는 올해로 5회째. 반나절의 시간이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민감한 사안을 주제로 잡아 알짜배기 강좌를 만들었다. 올해 강좌 역시 참가자들이 출판문화회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출판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운영해온 예영커뮤니케이션의 김승태 사장은 "이제까지 출판교육프로그램은 책을 만드는 과정인 출판편집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지금 출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케팅 전략이고 기획력"이라고 지적한다.

출판기획자인 김영수씨는 "해방 후 국내에서 출간된 책이 모두 65만종이지만 그 가운데 출판실무에 관한 책은 단 한권도 없었다"며 출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판실전 기획론, 홍보·이벤트 등 실기 중심의 재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한겨레문화센터'의 출판강좌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겨레문화센터의 팀장인 전주연씨는 "출판이 더이상 환상적으로 채색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매체와 구분되는 전문성, 산업으로서의 질적 심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할 때"라

고 출판전문강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학습 기능 넘어서 소모임도 활발

출판아카데미나 한겨레문화센터의 커리큘럼이 지금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면 출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출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예영은 출판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16주·8주 계획으로 출판론·미디어론·자질론·기획론·교정교열의 기초·편집실무·논문 레이아웃·출판제작·번역출판·전자출판론·출판광고학·표지디자인론·저작권관리실무·뉴미디어시대의 출판론 등을 가르쳤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몇가지 주제로 축약해 짧은 시간에 진행한다. 올해는 "이제는 출판도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저작권 전문가 빈프리드 부르트가 강의를 했다. 각각 80분씩 '작가나 해외 출판사들과 접촉하는 법',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법', '출판 마케팅의 새로운 경향들 - 틈새시장, 다이어트 마케팅, 아울렛을 통한 보급, 프리미엄 마케팅' 등 세 개의 강좌가 마련됐는데, 모두 출판계가 맞은 변화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필자 하나 잘 만나서 크게 터뜨린다'는 통속적인 의미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다. 서구의 출판사들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원고를 평가하며, 마케팅에 들어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 강의다. 출판인들이 갖춰야 할 출판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겨레문화센터도 출판계에 어떻게 입문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한다는 소박한 취지로 출판강좌를 마련했지만 지금은 그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다. 기획과 마케팅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강좌가 진행되고, 이번 여름부터 복디자인 강좌가 신설되었다. 강의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현장경험이 많은 젊은 출판기획자와 전문 영업인, 표지 디자이너다.

출판가에는 강의나 포럼형태로 강좌가 유난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재교육프로그램은 이들 강좌가 갖는 '학습'의 기능을 넘어서 출판의 비전을 공유하고 고충을 나누는 장

출판산업의 성장과 변화로 출판인 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몇몇 재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하게 분화된 출판인들의 전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더욱 전문화된 커리큘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예영출판아카데미'.

으로도 의미가 깊다. 그 때문에 재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모인 출판사들의 소모임이 활발하다.

한겨레 출판강좌 수강생들의 모임에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현씨는 "회원들의 생업이 대개 출판업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욕이 강한 편"이라며, 총 200명의 회원 가운데 두 달에 한번씩 있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60~70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이들은 스스로 듣고 싶은 강좌를 기획하고, 그에 맞는 강사까지 직접 섭외하면서 모임의 내실을 기한다. 얼마 전에는 김영사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기획자를 만나 기획에서 판매까지 뒷얘기를 들었고, IBM의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페이지 메이커' 운용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기도 했다. 참석하기만 하면 꼭 필요한 것을 배우고, 실전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 모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질적 분화로 지속되길 기대

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나 기획자가 토로하는 어려움은 한결같다.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질적으로 단계를 높여가거나 각론으로 분화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 예영의 김승태 사장은 "강좌를 한번 들은 사람이 다음해에는 좀더 깊이있고 세분화된 강좌를 이어 들을 수 있게 기획을 하려 해도 수강생들이 매년 새로운 얼굴로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고 말한다.

한겨레문화센터의 전주연씨 역시 "한번 강좌를 들은 사람들에게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제공할 프로그램 개설이 고민"이라고 한다. 출판기획자 김영수씨는 "지금 이루어지는 출판재교육은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일반론만을 가르치고 있다"며 각론으로 세분화한 치밀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출판분야가 다르고, 또 개인적으로 영업·편집·기획 등 회사 내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생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서점조합, 영업인·편집자 모임 등 다양하게 분화된 출판관련단체들이 각각 전문성을 살려 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나온다.

어느새 수강생 1천명을 배출했다는 한겨레문화센터의 출판강좌, 공식적으로 5회일 뿐 개별 출판사의 위탁교육이나 다른 이름의 출판강좌까지 합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예영출판아카데미의 예는, 출판인들이 얼마나 재교육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열망을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출판을 발전시킬 에너지는 결국 '헛힘'이 되고 만다.

— 이현주 기자